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 Newsletter

시민속으로 2017 / 9월 5주차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름 불볕더위가 물러가고 어느새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입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어김없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찾아오는 계절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살이가 그리 짝짝하지만은 않을 듯싶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여유로울 만큼 긴 연휴입니다.

남은 올 한해를 뜻 깊게 만들어 가족들과 따스한 시간 나누고 돌아오시는 길 편안한 여정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넓은 들판이 황금빛으로 출렁입니다. 익어가는 나락을 보며 땀 흘려 일하는 이들에게 일한 만큼 넉넉함이 전해지길 빌어봅니다. 우리 연구원은 남은 2017년 계획되었던 사업을 마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치않고 모두를 위한 내일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신뢰와 후원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를 전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이사장 김병문 드림

## ■ 연구원 소식

### ○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력사연구소와 협약체결 (9월 28일)

우리 연구원은 9월 28일(목)에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력사연구소(소장 김성호)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양 기관은 연구인력 상호교류, 공동학술연구 및 홍보, 국내외 공동 자료조사, 양 기관 인사의 교육 교류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 ○ 박남준 시인 북 콘서트 안내 (10월 20일, 선착순 25명, 참가비 2만원)

작년 봄 42차 문화강좌를 진행해 주셨던 박남준 시인이 오랜 벗들, 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묶어 **“박남준의 악양편지”** 라는 제목의 산문집과 시선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박남준 시인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 강은자 회원이 운영하는 **“새벽강”**에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남준 시인과 함께 저녁을 나누며 시인이 부르는 가을날의 노래도 나눌 수 있는 기회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문제로 **25명만 선착순 입장**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연구원 사무국 (286-3005)이나 사무국장, 행정실장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일 시 : 10월 20일(金) 19시~22시 / 참가자격 : 회원 및 동반인 -

- 장 소 : 전주 새벽강 / 참가비 : 1인당 2만원(식·음료 제공) -

###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디아스포라 강좌 안내”

- 주 제 : 남북간 민간교류와 한반도 평화공동체
- 강 사 :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장 소 : 전주대학교 진리관 307호
- 시 간 : 2017년 10월 12일(목) 16시~18시

: 디아스포라 강좌는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생은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오셔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 연구원의 강영식 이사가 강의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상시 모집 중>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옛 시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맹호연의 자는 역시 호연(浩然)으로, 지금의 호북성(湖北省)에 해당하는 양주(襄州)의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후대에 ‘맹양양(孟襄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가계는 자세하지 않은데, 양양의 남쪽에 장원이 있어 그의 가족이 이곳에 살았다. 그에게는 세연(洗然)이란 형에다가 형(馨)과 약(諤)이란 두 동생이 있었다.

■ 작 품

<b>過故人庄(과고인장)</b>	<b>친구의 농장에 들어</b>
故人具雞黍(고인구계서)	친구가 달 잡고 기장밥 해
邀我至田家(요야지전가)	나를 맞아 전원의 집으로 가니
綠樹村邊合(녹수촌변합)	초록의 나무들 마을가에 모였고
靑山郭外斜(청산곽외사)	푸른 산은 성곽 밖에 기울듯
開筵面場圃(개연면장포)	자리를 열자 마주하는 채마밭
把酒話桑麻(파주화상마)	술자을 들자 쏟아지는 농사 얘기
待到重陽日(대도중양일)	9월이라 중양절 돌아오길 기다려
還來就菊花(환래취국화)	다시 찾게 되면 국화에게 나아가리

■ 감 상

이 작품은 특히 마지막 구절의 ‘취(就)’라는 글자가 절묘하다고 하였다. 심덕잠(沈德潛)은 『당시 별재(唐詩別裁)』에서 “전체적으로 맑고도 묘하다. 마지막 구절의 ‘취’ 자가 주는 경지는 자연스러움으로 귀결된다.”고 평하였다.

코린토스 Korinthos (고린도)



어느 날 두 친구가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 이 때 한 친구는 잽싸게 혼자 나무 위로 올라갔고 한 친구는 미처 피하지 못해서 땅 바닥에 엎드려 죽은 듯이 있었다. 곰이 다가와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그냥 가버렸다. 곰이 사라지자 나무위로 피신했던 친구가 내려와 “곰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뭐라 하던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땅바닥에 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응, 위급할 때 도망가는 친구와는 길게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다. 고대 그리스 작가로 알려진 이솝은 동물들을 등장시켜 인간 세계를 풍자하였다. 그가 태어난 곳이 고린도이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원전부터 정치, 무역, 상업의 중심 도시로 번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배금주의와 향락으로 빠져들어 타락한 도시가 되기도 하였다.

고린도는 이미 다른 곳에 새 도시를 건설한지 오래되었고 구 고린도는 몇 개 남지 않은 아폴론 신전과 옥타비아 신전의 주랑이 안간힘을 다해 과거의 영광을 지키고 있다. 그밖에도 오데온(음악당), 극장, 상점 거리, 우물과 화장실 등이 비록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었지만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서 당시의 생활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코린토스 고고학박물관(Korinthos Ancient Museum)은 이곳 근처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 앞마당에서부터 각양각색의 주랑들을 비롯하여 유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국보급 유물들은 이곳이 그리스에서 손꼽히는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 최나래(한고연 회원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나의 본관은 삭녕이다. 삭녕은 조선시대 태조의 첫 번째 왕비인 신의왕후 한씨의 외향(外鄕)이라고 하여 중시되었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해 분리되어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으로 쪼개져 사라진 지역이다.

삭녕 최씨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의 인물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최항(崔恒, 1409~1474)이다. 추석을 맞이하여 아빠와 최항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러 가는 길에 인근에 있던 구치관(具致寬, 1406~1470)의 묘소까지 함께 다녀왔다. 이번 답사기는 이 최항과 구치관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볼까 한다.

최항과 구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을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최항의 집안인 삭녕 최씨나 구치관의 집안인 능성 구씨 모두 조선 건국을 전후하여 그리 주목할 만한 명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개인의 출세를 통해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처지였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처음 이어진 것은 과거를 통해서였다. 1434년 갑인년 문과에서 25명이 급제하였는데 최항은 장원, 구치관은 24등으로 급제하였다.

장원으로 급제한 최항은 집현전에 들어가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 한글 창제를 비롯, 세종대 문물 정비의 최전선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치관은 집현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해도관찰사를 보좌하는 황해도도사,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구치관이 중앙정계에서 큰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세조의 계유정난 이후였다.



<최항선생묘(경기도 기념물 제33호)>



<처남 서거정이 지은 최항의 묘비>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 황보인, 김종서를 제거한 다음 함경도에 있는 김종서 잔당을 처벌하는 일을 맡긴 사람이 바로 구치관이였다. 구치관이 함경도 지역의 일을 정리하는 동안 한양에서는 정난공신 책봉이 이루어졌다. 이 정난 1등 공신으로 들어간 인물 가운데 최항이 있었다. 최항은 정난 당일 입직 승지로 정난을 도운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구치관은 정난공신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에게 주는 좌익공신 2등에 책봉되었다.

구치관이 최항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세조의 총애를 받고 난 이후였다. 구치관은 세조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세조 즉위 이후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승정원 승지부터 시작하여 병조판서, 좌우찬성, 좌·우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역임하게 된다. 세조는 한명회, 신숙주와 더불어 구치관을 신임하였는데 한명회에게는 나의 '장자방(한 고조 유방의 중국 통일을 도운 장량)'이라 칭하였고, 신숙주에게는 나의 '위징(당 태종 이세민을 도운 신하)'이라고 칭하면서 구치관에게는 나의 '만리장성'이라고 칭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는 계유정난을 통해 김종서 등의 북방 전문가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군사 관련 업무나 북방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구치관이 적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 최항은 정난 1등 공신이 되었고 세조대에도 여전히 화려한 관직 생활을 역임하였지만 구치관처럼 세조의 총애를 받거나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아마 같은 집현전 출신으로 문장이 뛰어난 정인지, 신숙주 등이 세조에 적극 협력하였기 때문에 최항이 가진 장점이 제대로 세조에게 인정받기 어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읽은 분들 가운데 실망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조와 계유정난에 얽혀있는 이야기라면, 두 사람 중에 한명은 능력이 출중하나 세조에 협력하지 않고 낙향하는 이야기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최항과 구치관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 그 빛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두 사람을 함께 역사 속에서 꺼내왔다.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최항은 젊은 시절 집현전에서 세종을 돕던 시기가, 구치관은 불혹 이후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돕던 시기가 가장 빛나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후대에 역사 기록을 들춰보는 나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다.



<구치관묘>



<구치관묘의 석인상>

현재 최항의 묘소는 최항의 성격이나 관직 생활을 반영하듯이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찾아가기도 편하다. 그러나 구치관의 묘소는 그 흔한 안내 표지판도 하나 없고 네비게이션을 이용해도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도 잘 안되어 있다. 다만 구치관과 닮은 듯 한 키 큰 석인상만 그 묘소가 구치관의 묘소라고 알려주는 듯하다.

## ■ 도농상생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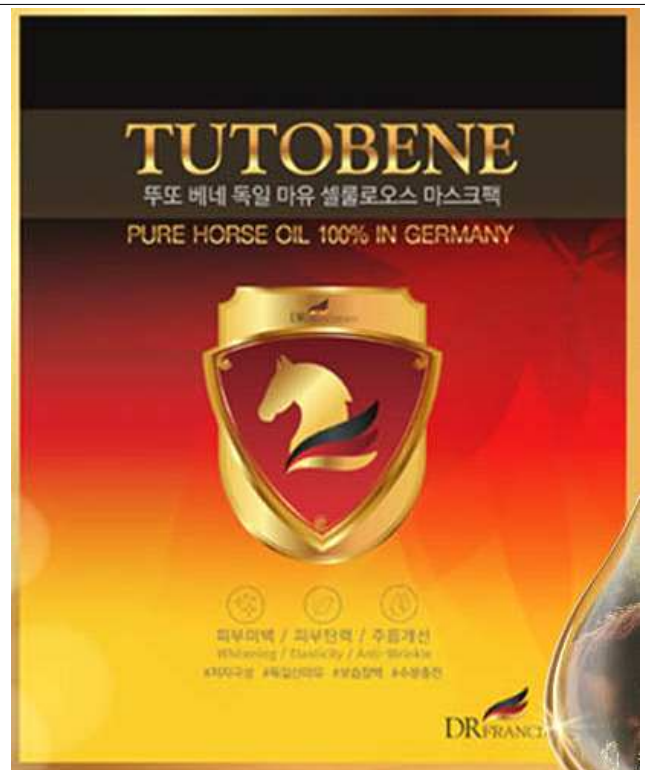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시 증 가 : 1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30g \* 5매 >

◇ 시 증 가 : 4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